선교사역 MISSION

우리의 국외 사역

큰은혜교회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박경복 목사 (일본)
아가페교회	MKCC 선교센터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이일환/이진숙 선교사 (미얀마)

Compassion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ESTEFANI	CAMILA	EMELY
GENESIS	NANCY	JENNSY	GAEL
JOSUE	ROBERTO	LIA	OSCAR
LUIS	YEFERSON	ORIANA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홈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제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순복음 파소 교회)

솔라노 지역과 파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리는 두 지교회

솔라노 | 주일 예배: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파소 | 주일 예배: 오전 10시 반 장소: 3402 Oak St, Paso Robles, CA 93446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 교육관

교회비전 VISION

MISSION STATEMENT

W.O.R.L.D. VISION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삼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예배안내 WORSHIP SERVICE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 육 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교육관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 임 목 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 육 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Sam Kim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예배순서 WORSHIP

제 5호 41권 Vol. 5 No.41

10.18.2026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김지훈 집사 Jihoon Kim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같이 Together
대표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우빛나래 자매 Bitnarae Woo
말 씀 Sermon	당혹하게 하는 사람 사도행전 9장 19~31절	담임 목사 Senior Pastor
합심 기도 United Prayer		다같이 Together
봉헌 및 찬양 Offering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다같이 Together
광 고 Announcements		담임목사 Serior Pastor
* 찬 양 Blessing Song	삼중 축복	다같이 Together
축 도 Benediction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대표기도 REPRESENTATIVE PRAYER

기도 순서

	10/18	10/25	11/1	11/8	11/15
1부	김지훈	김보라	-	-	임성호
2부	우빛나래	장승현	김종길	박소려	김영미

교회소식 ANNOUNCEMENTS

1. 식탁 교제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당에서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2. 홈리스 사역
홈리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홈리스 사역에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James Park
주소: N 2nd St & E St James St, San Jose, CA 95112

3. 9~10월 성경 읽기 프로젝트
범위: 대선지서~소선지서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성경 읽기 표에 체크하시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 가정 예배지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10월 생일

18일 박세례 사 모
20일 우빛나래 자매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열왕기상 13:20-26	열왕기상 13:27-34	열왕기상 14:1-20	열왕기상 14:21-31	열왕기상 15:1-8
Grace Kim	이중록	Sam Kim	이중록	임성호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10.18.2026

페이소스(Pathos)

'페이소스(Pathos)'라는 단어는 대개 눈물, 연민, 혹은 삶의 비장한 슬픔을 연상시킵니다. 그리스어 '파토스(Pathos)'에서 유래한 이 말은 고통과 수난을 뜻하기에, 우리는 흔히 이를 어둡고 무거운 감정으로만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시선으로 페이소스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우리 삶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따뜻하고 긍정적인 생명력이 숨어 있습니다.

<슬픔이 남긴 가장 따뜻한 인간미>

우리는 완벽한 영웅의 성공담보다, 어딘가 결핍되고 서툰 이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매료되곤 합니다. 찰리 채플린의 헐렁한 바지와 콧수염, 그리고 그의 엉성한 걸음걸이를 보며 우리가 미소 짓는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플린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페이소스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페이소스는 단순한 신파나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함투성이인 인간이 삶의 무게를 버텨내는 과정에서 붐어져 나오는 숭고한 아름다움입니다.

<긍정적 가치로서의 페이소스>

• 연대와 공감의 시작점 : 우리는 타인의 완벽함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지만, 타인의 페이소스 앞에서는 마음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너도 나와 같이 아프고 외로운 존재구나"라는 자각은 인간과 인간을 가장 단단하게 묶어주는 공감의 다리가 됩니다. 타인의 슬픔을 내 것처럼 느끼는 자비심은 바로 이 페이소스에서 발현됩니다.

• 삶을 긍정하는 회복탄력성 : 페이소스가 빛나는 순간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인간의 의지를 목격할 때입니다.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다시 옷을 훌훌 털고 일어나는 인간의 서사 속에서, 페이소스는 삶을 비관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끝까지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회복탄력성으로 작용합니다.

• 오만함에 대한 경계와 겸손 :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는 인간은 잔인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저마다의 페이소스를 짊어진 유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타인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페이소스는 인생의 차가운 겨울을 녹이는 온기입니다.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페이소스를 두려워하거나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아주 인간답게, 그리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슬픔 뒤에 밀려오는 이 묵직한 인간미야말로, 페이소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다정한 축복입니다.